

번호 02-2

제 목	국문	우리나라의 사회계층간 건강행태 차이			
	영문	Differences of Health Behaviors among the Social Strata in Korea			
저 자 및 소 속	국문	윤태호*, 문옥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영문	Tae Ho Yoon, Ok Ryun Moon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분 야	보건관리(V)	발 표 자	일반회원()	발표 형식	구 연(V)
	역 학()		전 공 의(V)		포스터()
환 경()					
진행 상황	연구완료(), 연구중(V) → 완료 예정 시기: 99년 10월				

1. 연구목적

세계보건기구의 건강증진을 위한 오타와 헌장에 의하면 “건강증진이란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건강에 대한 통제(관리)를 증가시키는 과정이며, 또한 자신들의 건강을 개선하게 하는 과정이다.”로 정의하고 있다. 즉, 건강증진은 사람들로 하여금 건강의 결정요인들에 대한 관리를 증가시킴으로서 스스로의 건강을 개선하게 하는 과정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단지 개인의 책임 및 능력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문화적 조건들을 함께 변화시켜나가는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게 된다. 특히 사회계층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거나, 저소득층들의 건강증진행태에 대한 재정적, 구조적 장애요인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서 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할 경우 경제적으로 부유한 층의 건강을 보호함으로써 건강의 불평등을 더욱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사회계층별로 건강행태수준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불평등 지표를 사용하여 분석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는 건강행태를 이용하여 이의 사회계층별 차이를 파악하고, 건강행태의 사회계층별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효과적인 건강증진사업을 통하여 건강의 불평등을 극복하는 방안으로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95년도 국민건강 및 보건의식행태조사자료이다. 이 중 보건의식행태 조사는 만 15~69세 가구원 중 1인을 표본으로 추출한 6,480명이며, 본 연구에서는 보건의식행태 조사에 응답한 경제활동인구층인 만 15~64세 인구를 대상으로 가구단위 및 개인단위 분석을 하였다.

사회경제학적 변수로서는 경제활동분야와 종사상의 지위를 감안한 사회계층과 이의 관련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교육정도, 결혼상태, 소득수준, 가족수 등이며 인구학적 변수로서는 성, 연령 등이다, 건강행태변수로는 건강수준에 밀접한 영향을 끼친다고 알려진 Alameda 7(운동, 흡연, 비만, 음주, 아침식사, 수면, 간식 등)과 이를 종합하여 점수화한 건강실천지표(Health Practice Index)이다. 이외에 주관적 건강수준, 심리적 건강수준, 예방활동 등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건강행태수준의 사회계층별 차이를 보기 위한 지표로서 건강의 불평등에 사용되는 지표들을 이용하였는데 이 중에서 가장 흔히 쓰이는 범위(Range)와 사회경제적 차원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알려진 기울기지수(Slope Index)와 집중지수(Concentration Index)를 이용하였다.